

# 尹 20%대 지지율에...대통령실, 반등 묘수 찾기 '고심'

### 취임 석 달만에 직무 긍정평가 28% 하락 전통적 지지층 TK·PK서도 부정평가 앞서 인사 문제,尹의 전 정권 비교 논란 키워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석 달 만에 5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단식으로 떨어진 터라 단번에 반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7월4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그쳤다. 7월2~3주차 조사에서 2주 연속으로 긍정평가가 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진정되

는 듯했으나, 이번주 들어 긍정평가가 4%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밑돈 것이다.

나머지 지표들도 좋지 않다. 단순히 긍정평가가 낮은 것을 넘어 부정평가도 높다. 전주보다 2%포인트 더 많아지면서 62%를 찍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18~29세의 긍정평가는 20%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61%로 3배 많았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유일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전통적인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마저 부정평가가 47%로 긍정 평가(40%)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도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57%로 크게

차이났다.

문제는 이같은 지지율 하락을 설명할만한 결정적 사건이 없었다는 점이다.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떨어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의 한미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치렀고, 누리호 발사 성공 등 호재로 평가할 만한 사례도 없지 않음에도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직무 수행 부정평가가 60% 안팎으로 나오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질문에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지"라고 답하는 모습에 답답함이 묻어나기도 했다.

지지율 하락 요인을 찾자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사(人事)다.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와 '민취 음주운전' 전력 후보자 임명 강행 등이 도마에 오른 와중에 인사 비서관 아내의 나토(NATO) 순방 동행 논란

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까지 연이어 불거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이전 정부보다는 낫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여기다가 지난 26일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메시지가 노출된 것이 아팠다. 대통령실 '격려' 차원이었다는 권 원내대표의 해명에 힘을 실으며 수습에 나섰으나, '자유 의세백당' 창당 발기인이자 극우인사인 '강기훈'이라는 인물까지 부각되면서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원인이 복잡적이고 단기 해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힘든 상황"이라는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30~40%대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는 또 다른 기류가 일어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를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

찰국 신실 문제나 여당 내용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메시지를 차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도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에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 이후 국회의장단 만찬 등을 가지며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나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 민생·경제 등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더 잘할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뭘가 하려 한다든가,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뭘가 해보겠다고 하기보다는 당초 하려고 했던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하다 보면 국민도 진정성,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 이준석, 배현진·조수진 잇단 사퇴 겨냥 "나즈굴·골룸 아닌가...당권에 탐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월 31일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의 잇단 사퇴를 겨냥해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앞서 사자성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활용해 자신이 비판했던 당내 인사들을 또다시 겨냥했다.

이 대표는 앞서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

해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9일과 이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존 로널드 로웰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과 동명의 영화에 등장하는 '나즈굴'과 '골룸'에 비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나즈굴은 '암흑의 군주' 사우론의 부하로 인간 시절 사우론에게 받은 반지의 힘에 이끌려 타락했고, 골룸은 절대 반지의 유혹에 휘둘러 욕망의 괴물이 된 캐릭터로, 반지(절대권력)에 집착한다.

이 대표가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반지의 제왕 등장인물에 빗댄 것은 본인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품에서 거대한 악으로 표현되는 사우론은 윤 대통령 또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거머쥔 윤핵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김재환 기자

## 이주부터 野 당대표·최고위원 전국 순회 경선 돌입

### 당 대표 3명·최고위원 8명 본선 진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대회에서 컷오프에 통과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당대표 후보, 장경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 도종환 중앙당 선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운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후보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과 토론회 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당 대표 컷오프에서 중앙위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 박용진·이재명·강훈식(기호순)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 컷오프에선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의원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오는 8월28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은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대상 권역별 전당대회 일정을 수행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기로 했다. 내달 6일 강원·대구·경북을 시작으로 7일 제주·인천,

13일 부산·울산·경남, 14일 충남·충북·대전·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 순으로 권역별 대회를 치른다.

전당대회 본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른다. 합산 결과가 높은 순으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투·개표 집계 결과 공표 시기는 전 권역이 동일하다. 개표는 오후 5시30분, 집계 결과 공표는 오후 6시30분에 실시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있을 때는 선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4주차 2회에 걸쳐 각각 발표한다. 선관위는 내달 12~13일 1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14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26~27일에 2차 국민 여론조사 및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실시, 28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당 대표 후보들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순회 지역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내달 2일 강원을 시작으로 3일 제주, 9일 전국 및 부산·울산·경남, 10일 충남·충북·대전·세종, 16일 전북, 17일 광주·전남, 23일 서울·경기 순이다.

최이슬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